

jewfri Brief

JEJU WOMA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78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4년 2월 26일 | 발행인 : 문순덕

제주특별자치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성과와 향후과제

이 화 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문제제기
2.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관련 제도
3. 제주지역 가정폭력 발생 및 가해자 교정·치료 현황
4. 제주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효과성
5. 향후과제

1. 문제제기

- 코로나 사태 이후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이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으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가정폭력 사건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가해자의 구속률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어 고위험군 가해자에 대한 교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이연화 외. 2023.)
 - 정부에서 수립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5대 폭력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여성폭력 방지 기본계획」의 2023년 시행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여성폭력 대응강화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재발위험 척도 개발 등 가해자 처벌강화 부문에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스토킹 및 교제폭력 사건 대응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시행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가정폭력 관련 정책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된 정책이 대부분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하여 가해자의 심리와 행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교정치료 관련 정책은 소홀한 면이 있었음
 -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던 여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2004년 처음 상담소 위탁으로 실시하다가 2019년 법무부와의 사업조정으로 축소되어 운영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으나(이화진. 2021; 5), 2024년부터 예산전액 삭감으로 사업이 폐지되었음(연합뉴스 2023. 10. 31 기사)

- 제주지역에서는 피해자 지원 못지않게 가해자의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폭력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화진, 2021)이 지적됨에 따라 선도적으로 가해자의 상담 및 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¹⁾ 있었으나 중앙부서에서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역에서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 사업이 폐지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경찰청과 제주시에서 가정폭력의 재범률을 낮추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대응력 강화와 가해자의 교정을 통한 재범률 감소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주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진단하고자 함
-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및 가해자의 심리변화 분석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함

2.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관련 제도

1) 정부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정책

- 정부에서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023년 시행계획에 따르면(여성가족부, 2023) 가정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포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 제주경찰청에서는 2022년부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사건의 증가에 따른 가해자의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추가 운영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관련기관(도의 관련부서,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마련을 위한 ‘여성폭력 대응 TF팀’을 운영하였음

- 여성가족부에서는 2004년부터 지난해(2023년)까지 약 20년간 가정폭력의 대물림 현상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법원의 수감명령 처분 및 상담위탁처분, 아동학대 행위자, 기타 경찰 등 기관에서 의뢰자 및 희망자 등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음
 - 2019년부터는 법무부와 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1. 법원의 상담위탁 대상자, 2. 아동학대 행위자, 3. 경찰관서 등에서 참가요청된 자로 지원범위가 축소되어 운영되었음
 -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운영모델은 개입이론 모델로 여성주의와 인지행동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정해진 매뉴얼에 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한 다음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소통강화와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 2024년 여성가족부는 본 사업이 1. 성과관리체계가 불명확하고 2. 사업효과의 입증자료 부족, 3. 1건의 부정수급 발견 등의 이유로 본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타부서(법무부, 법원행정처) 이관을 발표함(연합뉴스. 2023. 10. 12 기사)

2) 제주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까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음
 - 제주지역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제주시 가족사랑상담소에서 위탁 운영하였음
- 아울러 최근 늘어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사건(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에 대응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반복범죄 예방을 위하여 2023년부터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재범위험이 높고 상담을 희망하는 행위자에 한하여 '찾아가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였으나 예산문제로 사업이 일몰되었음
 - 사업의 주요 목적은 상담소와 경찰, 그리고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가정폭력 재범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법집행이 이루어지기 이전 사건발생 초기에 가해자 상담을 통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3. 제주지역 가정폭력 발생 및 가해자 교정 · 치료 현황

1) 제주지역 가정폭력 발생 현황

- 제주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한해 약 1,0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음
- 검거된 가정폭력 가해자 역시 매년 1,00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약 80% 내외, 여성이 20% 내외로 나타남
-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구속되는 비율은 전체 가해자의 2%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가장 높고(약 60% 내외), 불구속(20~30%), 기타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1 】 가정폭력 검거 및 처리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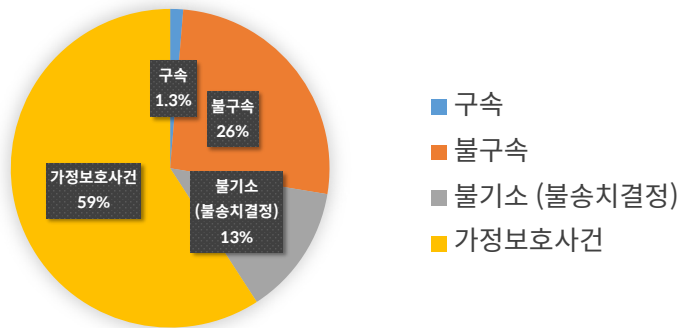
구분 (연도)	검거 건수 (전체)	가해자 성별			처리현황(명)					
		계	여성	남성	계	구속	불구속	불기소* (불송치결정)	가정보호사건	기타**
2023	1,074	1,219 (100.0)	257 (21.1)	962 (78.9)	1,219 (100.0)	16 (1.3)	317 (26.0)	160 (13.1)	713 (58.5)	13 (1.1)
2022	1,251	1,361 (100.0)	300 (22.0)	1,061 (78.0)	1,361 (100.0)	27 (2.0)	254 (18.7)	192 (14.1)	861 (63.3)	27 (2.0)
2021	995	1,038 (100.0)	195 (18.8)	843 (81.2)	1,038 (100.0)	8 (0.8)	294 (28.3)	126 (12.1)	593 (57.1)	17 (1.6)

자료 : 제주경찰청 내부자료, 2024

* 불기소 : 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한 경찰의 '불송치결정권'에 따라 ▶검찰 송치 시 불송치 결정된 건수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된 건수가 합산된 통계임

**기타 : 수사중지, 아동보호사건 송치

【그림 1】 제주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처리현황(2023)



2)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현황

- 제주지역에서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가 전문적 상담에 동의한 경우는 2023년 기준 218명에 달하고 있고, 최근 해마다 상담에 동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상담에 동의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수도 해마다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표 2】 가정폭력 교정·상담 동의자 현황

(단위: 명)

구분(연도)	교정·상담 동의자 수(전체)
2023	218
2022	148
2021	97

자료: 제주경찰청 내부자료, 2024

※ 가정폭력 교정·상담 현황에는 가해자를 ▶정신병원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연계한 건수가 모두 합산된 것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음

- 제주지역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인원은 130~16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연계기관별 가해자 상담 분표를 보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 연계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2023년에는 대폭 감소하였고, 경찰에서 연계한 가해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표 3】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연계기관

(단위: 명)

구분(연도)	합계	법원	경찰	보호관찰소	검찰	상담소 및 기타
2023	133(100.0)	26(19.5)	42(31.6)	63(47.4)	-	-
2022	154(100.0)	16(10.4)	35(22.7)	99(64.3)	-	4(2.6)
2021	160(100.0)	45(28.1)	18(11.3)	97(60.6)	-	-

자료: 제주가족사랑상담소 내부자료

4. 제주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효과성

1) 찾아가는 교정치료 프로그램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으로 가정폭력 행위자로 보복 및 재발우려로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거나 석방대상으로 상담에 동의하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도록 하여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임
-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임시조치 5호, 스토킹 잠정조치 4호, 구속영장 기각 및 현행범체포 이후 석방 대상이 해당됨
- 운영방식은 일대일 개인 상담으로 전문상담사가 직접 경찰관서로 찾아가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최대 10회기 상담 실시함
- 구체적인 사업운영 방식 및 시기, 사업주체는 다음의 표와 같음

【 표 4 】 제주특별자치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시범사업 개요

구분	사업주체	운영시기	참여자수	운영방식	효과성 검증
1차 사업	제주경찰청	2022. 10. 1 ~2023. 3. 31 (6개월)	25	전문상담사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전/사후 설문조사 실시
2차 사업	제주시	2023. 4. 1 ~2023. 12. 31 (9개월)	66	전문상담사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전/사후 설문조사 실시

2) 시범사업의 실적 및 효과(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후 참여자의 인식변화 및 프로그램의 운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함
- 1차 사업과 2차 사업 운영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영역을 1. 부부 및 가족갈등, 2. 의사소통, 3. 폭력 인식 으로 구성하였고 모두 22개 문항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함
- 구체적인 조사영역과 척도 및 질문내용을 다음의 표와 같음

【 표 5 】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 영역 및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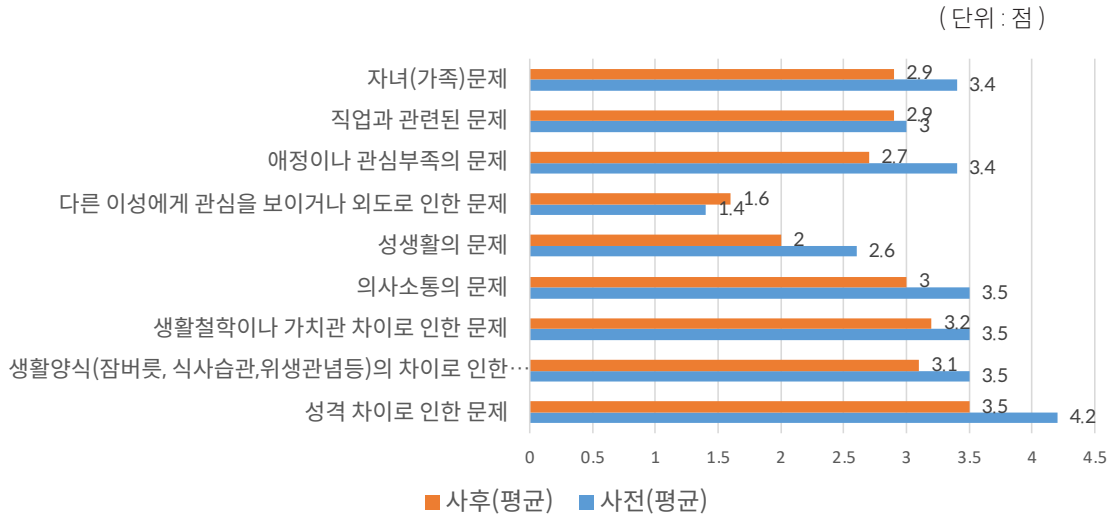
구분	문항	척도(5점 척도)					비고
부부 및 가족갈등	성격 차이	전혀 그렇지	비교적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9문항
	생활양식(잠버릇, 식사습관, 위생관념 등)						
	생활철학이나 가치관 차이						
	의사소통						
	성생활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외도						
	애정이나 관심부족						
	직업과 관련된 문제						
	자녀(가족) 문제						
의사소통	감정과 기분을 주저 없이 말함	전혀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지표 (4문항)
	배우자(가족)에게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질문						부정 지표 (5문항)
	배우자(가족)의 이야기 경청						
	배우자(가족)의 의견과 기분 존중						
	배우자의 주장이 옳아도 내 주장 고집						
	배우자(가족)의 장점보다 단점을 지적						
	배우자(가족)과 대화 귀찮음						
	배우자(가족)와 대화 불편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 안함						
폭력인식	부부(가족)싸움은 집안에서 해결	전혀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4문항
	배우자(가족)에 대한 폭력은 사랑싸움으로 문제 안됨						
	구타당하는 사람은 대체로 맞을 짓을 했기 때문						
	배우자(가족)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 있음						

자료 : 제주가족사랑상담소 내부자료. 2023

■ 1차 사업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사결과

- 참여한 25명에 대해 상담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의 평균을 5점 척도(숫자가 높을수록 문항에 찬성)로 분석한 결과 부부 및 가족갈등과 의사소통, 그리고 폭력인식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
- 부부 및 가족갈등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 9개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갈등정도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외도’ 항목에서 상담이후 갈등이 약간 높아진 것 (1.4→1.6)으로 나타남

【그림 2】 가해자 상담 이후 설문조사 결과(1차, 부부 및 가족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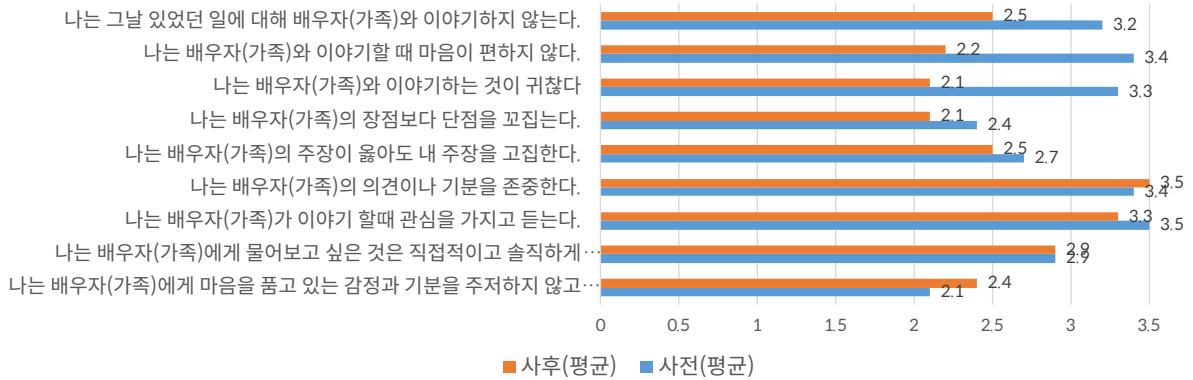


자료: 제주가족사랑상담소 내부자료, 2023

-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적 지표인 5개 항목('배우자와 이야기 하지 않음', '가족과 대화 시 편하지 않음', '대화가 귀찮음', '장점보다 단점 지적', '자기주장 고집')에서 상담 이후 '그렇다'는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렇다'는 정도의 감소폭이 큰 항목은 '배우자나 가족과 이야기가 귀찮다' 항목(3.3→2.1)이고, 감소폭이 가장 적은 항목은 '상대가 옳아도 내주장 고집' 항목(2.7→2.5)임
- 긍정적 지표인 네 가지 항목(숫자가 높을수록 긍정적)에 대한 조사결과 세 항목('상대의 의견이나 기분 존중' 3.4→3.5, '상대에게 감정과 기분을 주저없이 말함' 2.1→2.4)에서 같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남

【그림 3】가해자 상담 이후 설문조사 결과(1차, 의사소통)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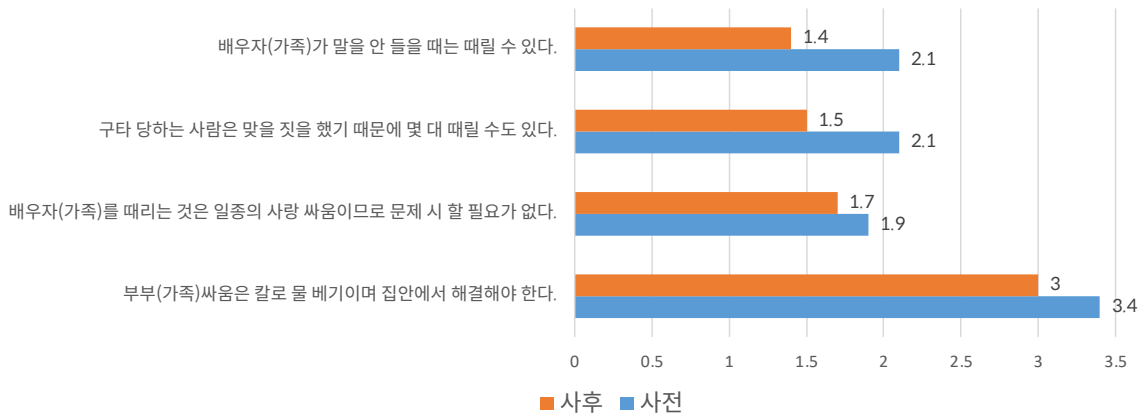


자료 : 제주가족사랑상담소 내부자료. 2023

- 폭력인식 영역에 대한 조사결과 네 항목 모두 폭력인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폭력인식의 정도가 가장 많이 감소한 항목은 ‘배우자가 말을 안들으면 때릴수 있다’ (2.1→1.5) 이고, 가장 적게 인식이 감소한 항목은 ‘배우자를 때리는 것은 사랑싸움으로 문제 안 됨’(1.9→1.7)으로 나타남

【그림 4】가해자 상담 이후 설문조사 결과(1차, 폭력 인식)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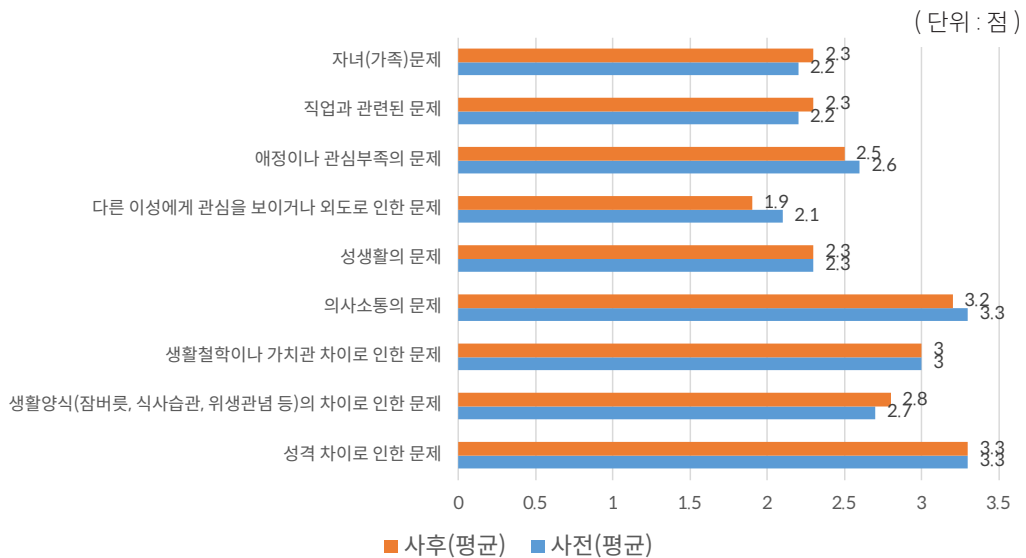


자료 : 제주가족사랑상담소 내부자료. 2023

■ 2차 사업 (2023년 4월~2023년 12월) 조사결과

- 부부 및 가족갈등 영역에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약간 감소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나타냄
- 상담 전/후 9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갈등의 정도가 감소하였고, 3개의 항목에서는 갈등의 정도가 증가, 3개의 항목에서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갈등의 정도가 감소한 항목은 '애정이나 관심부족'(2.6→2.5), '외도로 인한 문제'(2.1→1.9), '의사소통'(3.3→3.2)등 개인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갈등의 정도가 증가한 항목은 '가족문제나 직업'(2.2→2.3), 생활양식의 차이(2.7→2.8)에 대한 갈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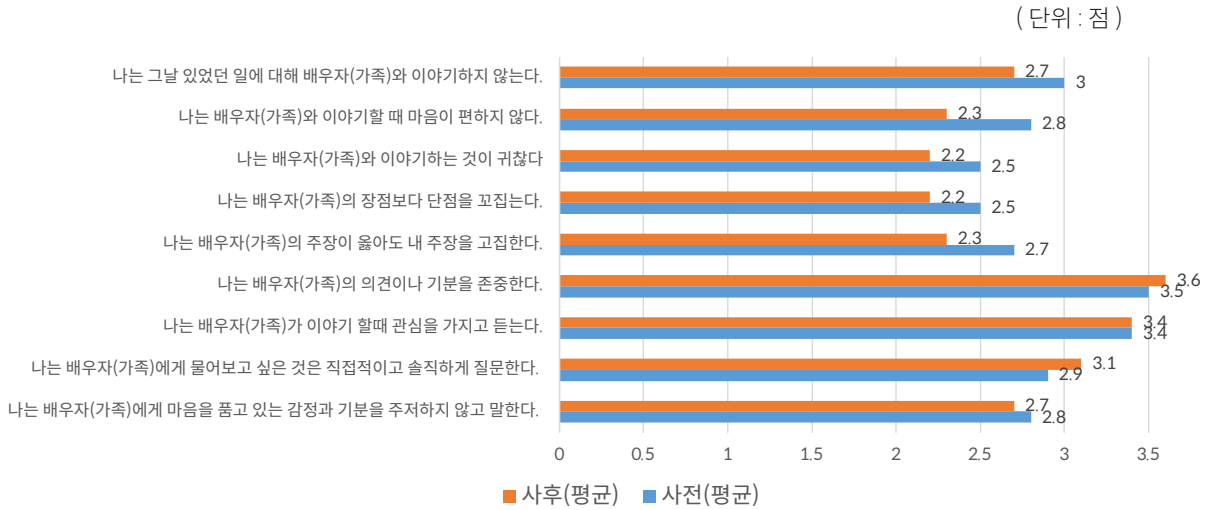
【그림 5】 가해자 상담 이후 설문조사 결과(2차, 부부 및 가족갈등)



자료 : 제주가족사랑상담소 내부자료, 2023

-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남
- 부정지표 다섯 개 항목에서는 모두 부정적 인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지표 네 가지 항목에서는 두 항목에서 긍정인식의 증가, 한 항목은 변화 없음, 한 항목에서는 약간 감소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남
- 부정지표의 인식변화가 큰 항목은 '가족과 대화할 때 마음이 편하다'(2.8→2.3), '자기주장을 고집'(2.7→2.3), '장점보다는 단점 지적'(2.5→2.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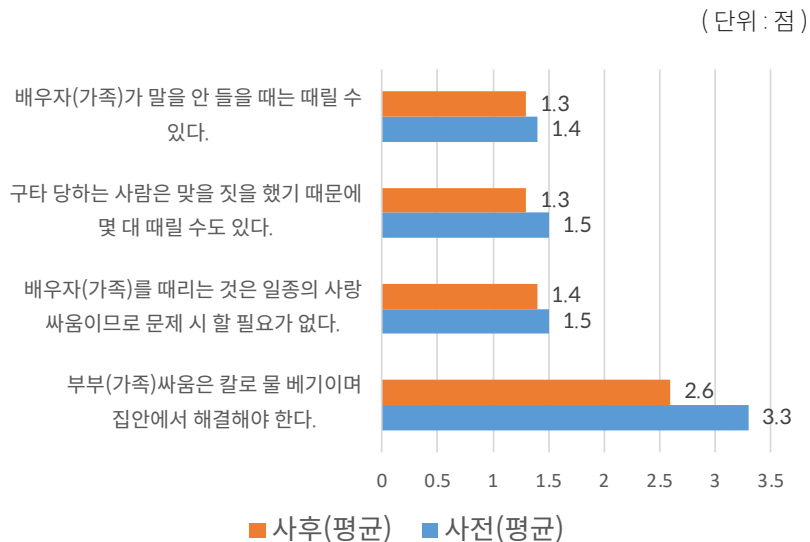
【그림 6】 가해자 상담 이후 설문조사 결과(2차, 의사소통)



자료 : 제주가족사랑상담소 내부자료. 2023

- 폭력인식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폭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나타남
- 구체적으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며 집안에서 해결’에 대한 항목에서 그렇지 않다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3.3→2.6)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냄

【그림 7】 가해자 상담 이후 설문조사 결과(2차, 폭력 인식)



자료 : 제주가족사랑상담소 내부자료. 2023

3) 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을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1차와 2차 사업 모두 가해자의 인식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밝혀짐
- 1차 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족 및 부부갈등(9개 항목 중 8개 항목이 갈등 감소), 의사소통(9개 항목 중 7개 항목이 긍정적), 폭력인식(4 항목 모두 긍정적) 영역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남
- 2차(2023. 4월~2023. 12월) 사업 참여가에 대한 조사결과 부부 및 가족갈등(9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갈등 감소), 의사소통(9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긍정적), 폭력 인식(4 항목 모두 긍정적)영역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5. 향후과제

1) 사업의 지속적 운영 필요

- 제주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처음 실시된 것은 가정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분리되기 어렵고, 법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보복범죄 및 지속적인 피해발생 우려에 대응하여 예견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음
- 최근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다각화되는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건발생 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상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최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의 상담 수요가 매년 증가하였음
- 선제적으로 제주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스토킹 및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에 대한 모범적인 대응사례로 지적²⁾ 되었고, 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 중³⁾에 있음

2) 본 사업은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지역의 '찾아가는 가해자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법률개정을 통한 전국 확대 실시 필요성이 언급되었음("제주경찰청 국정감사, '엄지척' 잇따라", 뉴스제주, 2022. 10. 21 기사 참조)

3) 관련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2024년 5월 안에 통과를 추진 중임, 법률개정안 내용은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일부를 개정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은 가족 내 소통과 가해자의 가부장적 사고의 인식전환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여성주의적 상담 프로그램을 약 20년간 수행해 왔고 중앙정부와 지역에서 모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이 중단되면 법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인식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보복범죄 및 반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2) 사업추진체계 강화

- 본 사업은 제주경찰청과 제주시 주관 시범사업으로 제주가족사랑상담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었음
- 제주시 사업으로 실시할 경우 서귀포지역 도민들에 대한 홍보와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고, 제주지역에서 추진하는 대표 사업으로 관리·운영하기 어렵고 사업성과도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도 본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사업 운영주체의 다각화

-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주시 소재 상담소 한 곳뿐임
- 여성폭력 가해자 상담 사업은 여성주의 방식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오랫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에서 주로 운영해 왔음
- 해당 사업은 상당기간 상담경험 및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어 왔고, 인력이나 예산 등 인프라가 부족의 이유로 상담기관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 상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에 대한 한계극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양질의 상담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해당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역량강화와 상담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4)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 향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함
- 본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의 참여배경, 사전/사후 인식변화, 인식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 가해자의 인식변화의 맥락,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범여부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이연화·허순임·고지영(2023). 「제주지역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화진. (2021). 「제주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정책방향」(이슈브리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가족부(2023) 「여성폭력방지 2023년 시행계획」.

제주경찰청 내부자료. 2024.

제주가족사랑상담소 내부자료. 2023.

“하나둘씩 사라지는 여가부 사업... 가정폭력 교화도 ‘폐지’수순”. 연합뉴스 2023. 10. 31.



631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89(연동) 2층, 3층

T.(064)720-4900 F.(064)711-2349 🏠 www.jewfri.kr ✉ jewfri@jewfri.kr